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④ 〈석보상절〉 서문에 담긴 것



▶ 한줄요약
〈석보상절〉 서문은 〈월인석보〉 1권에 전해지는 내용으로 읽어 보았다. 짧은 서문 안에는 우리가 몰랐던 훈민정음과 불교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담겨 있다.

'석보상절', 훈민정음에 날개 달다



그림 · 강병호

〈석보상절〉 제목의 의미

이름 지어 가로되 '석보상절(釋譜詳節)'이라 하고 이미 차례를 헤아려 만든 바에 따라서 세존의 도리 이루신 모습(팔상도)을 그리고

네 번째 《석보상절》 이야기는 '석보상절' 의 뜻을 친절하게 훈민정음으로 풀이하고 이 책의 간행 목적, 그리고 《석보상절》 완성을 정확하게 기록한 중요한 내용의 결정체가 들어있는 '석보상절 서문' 의 마지막 부분이다.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첫 책은 12부 수다라에서 철저히 가려 뽑아 〈석보상절〉이라고 하였는데 사전역할을 하는 협주에 그 설명이 상세하다.

곧 석가모니의 '석(釋)', 일대기의 '보(譜)', 상세히 할 경전과 중요한 내용은 자세히 할 '상(詳)',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절약할 '절(節)' 이라 하여, '석보상절(釋譜詳節)' 로 이름 지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용의주도한 세종과 그 아들 수양대군의 의도대로 훈민정음 학습서 겸 불교 홍포 목표를 겸하여 책의 목차도 면밀히 정했다. 애석하게도 〈석보상절〉 1권이 전하지 않지만 그 내용이 들어있는 〈월인석보〉에 준해 석보상절의 차례를 예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석보상절 차례〉(추정)

① 훈민정음 서문과 예의 ② 팔상도 ③ 석보상절 서 ④ 석보상절 본문

이러한 차례에 따라 먼저 '훈민정음' 을 학습하고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정교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팔상도〉를 그렸다.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여덟 가지로 정리한 '도솔래의' 부터 '쌍림열반' 에 이르는 '팔상도' 로 전체 개요를 이해한 뒤 훈민정음으로 쓰여진 석보상절을 한 글자씩 짚어가며 공부하도록 만들었다.

〈팔상도〉의 그림

①도솔천에서 흰 코끼리를 타고 내려와 어머니 마야부인의 태몽으로 그려진 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 ②카필라국 룸비니 동산에 태어난 모습의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③생로병사의 모습을 맞닥뜨리며 관찰하는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④궁궐의 성문을 넘어 출가하는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⑤깨달음을 얻기 위해 설산에서 수도하는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⑥보리수 아래 수행정진 중 마구니의 항복을 받아내는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⑦녹야원에서 진리의 바퀴를 굴리는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 ⑧사라나무 사이에서 열반하는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

팔상도와 석보상절 서문이 수록된 서강대본 〈월인석보〉 제1권의 '쌍림열반상' 은 애석하게도 떨어져 나갔는데 다른 책의 '팔상도' 에서 보충할 수 있다. 그 후 이 '팔상도' 는 조선시대 불화의 주요 저본이 되고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석보상절〉과 '훈민정음'의 목적은

'팔상도' 의 여덟 가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석보상절 책의 서문이 등장한다. 우리가 어릴 적 처음 글자를 익혀 한글을 떼면 그림책으로 넘어가듯이 그림으로 석가모니 일대기를 학습하면 만나는 최초의 산문 문장이 바로 〈석보상절〉 서문이다.

또 훈민정음으로써 그에 따라 더 번역하여 새기니

사람마다 쉽게 알아 삼보에 나아가 의지(귀의)하기를 바라노라.

이제 조선의 백성들이여, 훈민정음을 가지고서 중국 글자가 아닌 우리 글자로 더 자세히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 알기 쉽게 부처의 일대기에 대한 책을 만들었으니 배우고자 하는 사람마다 쉽게 이해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기를 간곡히 바라 마지않는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문장이지 않은가. 그렇다. 〈훈민정음〉 서문의 마지막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사용함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던 세종의 문체 그대로이다. 그렇다면 이 서문은 세종의 문체인가, 수양대군의 문체인가, 왕의 연설문에 나타나는 전래 형식의 문체인가. 이 또한 집단지성의 힘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훈민정음 활용 첫 산문 작품
1권 전승 안돼 '차례'는 추정
서문, 수양대군이 직접 저술
짧은 내용에 많은 코드 담겨

〈석보상절〉의 역사적 기록

〈석보상절〉을 읽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1447년을 기억해야 한다. 이해에 비로소 훈민정음이 물속의 고기처럼 자유자재해졌다는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험해 온 짧은 운문 〈용비어천가〉(1445)에서 드디어 장편 24권의 산문 책 〈석보상절〉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쩌면 음력 1446년 9월 상순을 양력으로 환산한 지금의 '한글날' 만큼이나 훈민정음의 최종 완성을 기록한 석보상절의 1447년 음력 7월 25일을 기념해야할 지도 모른다. 반포일도 물론 중요하다. 그 반포한 글자로 길고 긴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완성하고 나서 서문을 또박또박 써내려간 그 날이야말로 훈민정음에 날개를 단 날이다. 그것이 정확한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정통 12년(1447년) 7월 25일에 수양군이 서문을 쓰노라(正統 十二年 七月 二十五日에 首陽君 諱 序ᄒᆞ노라)

그리고 마지막 기록 1447년 음력 7월 25일에 세종의 둘째 아들 왕자 수양군 유(瑈)가 서문을 쓴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쓰지 않고 휘(諱)라고 기록한다. 왕이나 그에 준해 높여야 할 인물의 이름을 우리는 피휘(避諱)한다고 한다. 즉 직접 이름자를 쓰는 것을 불경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왕자 자신이 자기 이름을 쓰면서 피휘를 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 시대의 관례였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실제 〈석보상절〉의 저본으로 추정되는 '증수석가보' 를 지은 김수온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석보상절〉의 짧은 서문 안에는 우리가 몰랐던 훈민정음과 불교에 대한 새로운 사실과 꼬리를 무는 궁금증 그리고 조선시대 불교 수용의 배경과 역사, 왕들의 개성과 성격 등 무수한 다빈치 코드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은하수를 이루고 있다. 이제 그 '석보상절 서문' 의 유려한 문장을 수양대군의 목소리로 다시 음미해보자. 잠시 수양대군이 되어 염송해도 좋겠다.

〈석보상절 서〉

부처께서 삼계의 높은 분이 되어 계셔서 중생을 널리 제도하시니

그지없어 못내 헤아릴 공과 덕은

사람들과 하늘들이 내내 (다) 기리지 못하는 바이시다.

세간의 부처 도리를 배우려고 하는 이가 (있어도)

부처 태어나 다니시며(활동) 가만히 계시던(입종) 처음부터 마지막 까지 아는 이가 드무니

비록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도

또 팔상도에 나오는 그림을 넘지 못하고 마느니라.

세종께서 나(수양대군)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천追薦(소헌왕후 극락왕생)이 경전을 옮겨 쓰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 네가 석보를 만들어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근래에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이때까지 (나온) 여러 경전에서 가려내어

각별히 한 책을 만들어 이름 지어 가로되

석보상절(釋譜詳節)이라 하고

이미 차례를 헤아려 만든 바에 따라서

세존의 도리 이루신 모습(팔상도)을 그리고

또 훈민정음으로써 그에 따라 더 번역하여 새기니

사람마다 쉽게 알아 삼보에 나아가 의지(귀의)하기를 바라노라.

정통 12년(1447년) 7월 25일에 수양군이 서문을 쓰노라.

〈석보상절〉 서문은 〈월인석보〉 1권에 전해지는 내용으로 읽어 보았다.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석보상절〉을 읽어 나간다. 현재 〈석보상절〉 3권부터 전해지고 있지만 조선 최초 훈민정음 불경을 함께 염송하는 공덕으로 1권과 2권이 꼭 출현하기를 발원한다. 석보상절 3권은 싯다르타 태자가 탄생하여 아버지 정반왕이 이름을 짓는 이야기부터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